

‘대기업도 두 손 드는데’... 광주시 시내면세점 유치 난망

중 관광객 급감에 수익성 없다 판단 최근 한화, 두산 면세점 사업권 포기 14일까지 유치 실패시 특허권 반납

광주시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 외국인 관광객 수 대비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업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로부터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받은 뒤 유통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인천공항 신세계면세점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유통 3사 대기업들이 모두 손사래를 쳤다.

광주시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신규 대기업 면세점 대상이지만 일반 경쟁인 만큼 중소기업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아 중소기업들과도 접촉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시내면세점은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유통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적자가 쌓이면서 한화에 이어 두산그룹도 최근 사업권을 포기했다.

서울의 시내면세점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다 광주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적은 것이 투자 기피 요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13년 15만8000명에서 2014년 5만6000명, 2015년 10만6000명, 2016년 8만6000명, 2017년 14만4000명으로 전국 외국인 관광객 수 대비 1%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11일부터 14일까지 시내면세점 운영에 따른 특허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광주시에 이 기간에 시내면세점 투자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면 특허권을 반납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미 서울지역 대기업들이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라 지리적·경제적 여건상 열세인 광주는 더욱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지만 실패할 경우 내년에도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내면세점은 모두 26개로 전국 광역자치체 중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충남 등 5곳만 시내면세점이 없다.

/전남=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지난 17일 광주 북구청·북광주 농협 직원들과 육군 제31사단 503여단 3세대 장병들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여파로 도복 피해를 입은 효령동 일대 농가에서 쓰러진 벼를 세우고 있다. /뉴시스

광주 남구, 태풍 피해 벼 전량 매입

농가 18곳서 39.9t 피해 발생

광주시 남구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벼를 전량 매입한다.

남구는 가을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관내 벼 재배 농가의 손실 최소화와 품질이 낮은 쌀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벼를 매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남구지역에서는 대촌동과 송암동, 효덕동 18농가에서 39.9t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품종 제한 없이 농가에서 요청한 물량 전체를 수매할 방침이다.

매입 대상은 건조 벼이며 30kg 포대 벼와 600kg 대형 포대에 담긴 건조벼를 수매할 예정이다.

피해 벼의 특성상 쭈정 등이 포함돼 무게가 늘어날 수 있음에 따라 포대 벼의 경우 40kg짜리 포대에 쭈정 등을 제거해 수매하고, 대형포대의 경우도 같은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에 76.9% 수준이다.

남구 관계자는 “태풍 피해 벼 매입은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본 벼 재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차정준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1일 (금)
음력 : 10월 5일

수도권 날씨
9 ~ 1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56 | 해질 / 17:35

연천 5/18
동두천 7/19
가평 6/19
파주 5/18
서울 9/19
양평 9/20
인천 11/18
수원 10/18
용인 10/18
평택 9/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

정장선 시장 헌법재판소 1인 시위 행정효율·주민편의 위해 귀속 촉구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 회 의장이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평택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로 결정하면서도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

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유수면매립지의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에,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개항기로 떠나는 청춘 파티 ‘신포야회’

인천 중구, 내일부터 신포청년물서

인천 중구가 개항누리길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청춘파티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2일부터 ‘신포야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개항누리길상점가와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 공동 주관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개항누리길상점가만의 정체성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 개항누리길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상점가의 변화된 모습을 고객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신포야회’는 개항시대의 의상과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11월 2일에는 신포청년물서 야외무대에서 극 공연과 왈츠무대, 개항의상 베스트 시상 등이 펼쳐진다.

11월 15일과 16일에는 개항당시 먹거리 체험과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신포야회는



인천 중구 개항기로 떠나는 신포야회 포스터

인천 중구만의 개항시대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포야회 관련 공연 및 체험 행사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항누리길상점가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광주시 테마파크 구상 실현 가능성은 ‘글썽’

광주시에 이전 추진 중인 군 공항 부지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이전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는 데다가 사업성이나 투자 실현도 불투명해 성사 여부는 알 수 없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0대 시책 가운데 하나인 군 공항 부지 스마트 시티·테마파크 조성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군 공항의 전남 이전을 전제로 2028년까지 여의도 면적(2.9㎢)의 3배가 넘는 8.2㎢(248만평)에 달하는 기존 부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부지 일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면서, 시 공무원들이 지난 6월 중국 상하이로 찾아 국제 테마파크 박람회, 디즈니랜드 등을 참관했다.

테마파크의 세계적 트렌드를 분석하고 주요 참여기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전남=차정준 기자